

사건 알선 돈 챙긴 '타락 경찰'...사건 열람 늦추는 '권위 검찰'

경찰관 비위 재판서 드러난 광주 법조계의 민낯

경찰이 '청탁수사'에 변호사 알선, 수수료 챙기기 오랜 관행 변호사, 전문 브로커 고용해 수익 나누고 재판 불성실 참여도

'사건 알선 커미션', '청탁수사', '사건기록 열람·복사 제한' 등.

최근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감·경 수사과정에서의 구태, 관행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 소개하고 소개비 받는 경찰 관행=광주경찰청 소속 경찰이 받고 있는 혐의는 경찰인지, 브로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A(50)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시기를 대상 업체측에 미리 알려주고 정작 압수수색나가는 할 게 없다며 집행을 하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9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

린 재판에서는 A 경위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찰 B씨도 피고인석에 섰다.

지난 2008년 퇴직한 B씨는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엮으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후배인 A 경위에게 청탁,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수사 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 경위는 B씨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사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흘려주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알려줬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양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의 중인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성하기만 했던 청탁수사, 정보 유출, 사건 알선 등이 공개 재판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전면적 수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맡는 사건 피의자 등에게 '실력 좋은 변호

사이니 형량을 줄여 줄 것'이라며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0%의 수수료를 받는 게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경찰 안팎에서 흘러 나오는 공공연한 얘기다.

광주지역 모 경찰서 경찰은 "지능수사팀, 경제팀 등 수사 경찰들의 경우 피의자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게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다"면서 "예전엔 변호를 맡은 의뢰인 사건을 경찰 수사 전부터 알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 인지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입(?) 능력 갖춘 변호사 사무장 고용, 왜=전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평소 친분이 있는 A 경위에게 수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34조)은 변호인은 물론 비법조인도 대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달라진 법조계 실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검찰·법원 사건은 비슷한 수준인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진입으로 변호사 수는 늘면서 변호사 1인당 사

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120명이 넘는 변호사가 새로 가입해 현재 442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다. 변호사가 꾸준히 늘면서 사건 선입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다, 변호사 양극화 현상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의 선입료는 심리적 지지선인 330만 원은 커녕, 220만원도 깨진 지 오래로, 건물 임대료와 월급 주기도 빠듯한 변호사들의 경우 외근 사무장을 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브로커들이 특정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받는 묏은 선입료의 보통 30% 정도라고 한다. 1억원의 선입료를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이 중 3000만 원은 브로커가 챙기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비용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변호사는 브로커보다도 못한 수익을 챙기게 된다.

◇사건 기록 열람도 못하고 재판 받아야=검찰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는 변호인들이 재판 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료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최근 주요한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가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면서 재판 진행 차질로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재판에서는 A 경위 재판에 쓸 증거와 관련, 변호인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의뢰인 사건 기록조차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재판에 참석하다 보니 방어권을 위한 입장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니 재판을 늦춰달라는 요구도 잇따르는 형편이다.

광주지검의 기록 열람·복사실이 비좁은 데다, 복사 열람할 사건 서류가 많아 제대로 신속하게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예약제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복사 기계가 많지 않고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역 변호사들 이야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같은 점과 관련, 광주지검과 협의해 자동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열람·복사실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강구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혜성 납품 계약' 이용섭 시장 동생 3년 구형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6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혜납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사)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에게 알선해줄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철근 납품 전 호반 협력업체로서 6~7년간 냉·난방 기계를 납품해왔고 2017년 3월 철강유통회사를 신설,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4월 호반건설의 협력업체가 됐다.

A씨 측은 실제 철근 납품 계약은 이용섭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으며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구청 직원들 헌혈 동참 겨울철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9일 오전 광주 남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혈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숙취운전' 하다 접촉사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여수지역 IC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 옆 차선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A 지청장의 혈중 알콜농도는 0.044%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은 조만간 A 지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 지청장은 "음주 후 잠을 잤던 터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공직자로 승수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 금전 거래 전남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기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전남경찰청 A 경감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청구된 전남경찰청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각 사유를 내 놓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A 경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A씨의 사건 관계인과의 수천만원대 부적절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해소 기각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일일수입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

를 기각했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에 반란군으로부터 순전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낸 2020년 7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연합뉴스

<h1>상가매매(상무지구)</h1>	<h1>장성 토지(매매 분양)</h1>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1>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td> </tr> <tr> <td></td> <td>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td> </tr> <tr> <td></td> <td>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td> </tr> <tr> <td></td> <td>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td> </tr> <tr> <td></td> <td>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td> </tr> <tr> <td></td> <td>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td> </tr> <tr> <td></td> <td>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td> </tr> <tr> <td>전남</td> <td>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td> </tr> <tr> <td></td> <td>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td> </tr> <tr> <td></td> <td>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25)</td> </tr> <tr> <td>시외</td> <td>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td> </tr> <tr> <td></td> <td>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td> </tr> </table> <p>062-382-5500</p>	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25)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																											
전남	목포시 상동(잡종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25)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																											